

몸을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널 수는 없다 : 갈등

- 모든 이야기의 재미는 ‘긴장감’에서 발생한다
-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몸에 물을 적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 물살이 거센 강일수록 건너는 힘이 박진감 있다, “빠다귀를 두고 싸우는 두 마리 개”, 의지가 충돌하는 장
- 갈등의 구성과 해결이야말로 모든 이야기의 목적이다 : 싸움/판돈/최후의 전투/떠남,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이야기는 갈등과 해결을 지닌다”
 - 갈등 : 이야기가 시작하여 주인공이 운명이 바뀌는 지점까지
 - 해결 : 주인공의 운명이 바뀐 지점에서 결말까지
- ⑤ 「대부」의 갈등과 해결 : 가족이라는 ‘작은 선’을 위해 정의라는 ‘큰 선’을 포기
- 이야기는 삶의 은유이며, 산다는 것은 결국 쉴 새 없는 갈등의 연속이다
- 훌륭하고 첨예한 갈등의 면모
- 적대(대립)세력이 강하고 복잡할수록 인물과 이야기는 완벽하게 구현된다
- ⑤ 「슈퍼맨」의 선택의 딜레마, 「육사오(6/45)」의 분단 현실, 「톡 투 미」의 중독
- ⑤ 「쓰리 타임즈」: 권력의 타율적인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연애몽
- 갈등은 잘 다루지만 해결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많다 - 해결 부분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삶의 진실이 제시되며 주제가 부각된다
- 좋은 이야기는 ‘도덕적 질문을 제시’하는 갈등을 다룬다(내면의 전쟁터) : 보통 자신의 신념과 도덕체계, 가치관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 “인간이란 오늘 노트르담 사원을 짓다가 내일 아우슈비츠를 짓는 존재이다” - 뚜렷한 상황을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큰 선/작은 선, 큰 악/작은 악 간의 선택이 더 큰 갈등구조를 제시한다
- ⑤ 「박쥐」: 사랑과 구원의 종교적 신념을 지닌 신부가 타인의 피를 먹는 흡혈귀로 변신
- ⑤ 「사일런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타인의 생명을 구원할 것인가?
- ⑤ 「똑똑똑」: 재앙을 목전에 둔 희생과 구원의 딜레마
- ⑤ 「위스」: 인간의 목숨값은 얼마이며, 얼마나 평등한가?
- 갈등 해결부에서는 발견과 반전을 결합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 가장 행복한 발견의 순간과 가장 불행한 반전의 순간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아이러니 효과 발생
 - 하강종결 : 성공, 권력, 사랑 등의 욕망을 강박적으로 추구하여 성취하지만 인물은 파멸
 - 상승종결 : 강박에서 벗어나 다시 자기 자신을 회복
- ⑤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이언 맨의, 아이언 맨에 의한, 아이언 맨을 위한
- ⑤ 「베테랑」의 상승종결 혹은 하강종결? : 금세 휘발되어 버리는 어떤 사회적 통쾌함

조태오를 법정에 세웠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된 게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이 영화를 본 사람들 중 이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 믿는다. 허구의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와 늘 같으리라는 법은 없다. 「배트맨」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부모를 잃은 백만장자가 가면을 쓴 자경단원이 되어 미치광이 악당들을 때려잡는 세계를 별 의심 없이 믿는다. 하지만 「베테랑」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 같은 곳이 아니라면 이야기 자체가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두 세계가 같은 곳이라면 조태오는 감방 안에서 특별대접을 받으며 얼렁뚱땅 몇 년을 보내다가 광복절 특사로 나왔을 거다. 통쾌한가?

· 아이러니의 5가지 유형 : 지각의 아이러니, 파랑새의 아이러니, 목표 오인의 아이러니, 자학의 아이러니, 상실의 아이러니

- ⑤ 「엑시던트」의 고도의 아이러니 상황 : 의혹, 불신, 무지의 비극
- ⑤ 「돈 룩 업」 : 위기를 일부러 보지 않기, 의도적 무지의 파국
- ⑤ 「드라이브 마이 카」 : 미끄러지는 언어와 서로에게 가 닿는 언어
- ⑤ 「담보」와 「소리도 없이」 : 아이는 그렇게 영원히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 ⑤ <쇼핑백 아줌마를 위한 촛불>의 해결 구조 : 피살자가 스스로 살인자를 잡다



· 갈등의 세 가지 유형

- 존재론적 갈등 : 죽음과 운명, 인간 존재의 한계와의 싸움
- 사회적 갈등 : 제도적 폭력, 경제적 불평등, 지배적 이데올로기와의 싸움
- 자아와 자아의 갈등 : 내면, 또다른 자신과의 갈등

- ⑤ 「버드 박스」 : 눈을 뜬 자가 악이고 눈을 감은 자가 선이다
- ⑤ 「차이타운」, 「협녀」, 「암살」, 「마녀」 : 살부살모(殺父殺母), 세대 갈등의 상상력
- ⑤ 「렛미인」 : 내 안의 매혹적인 흡혈귀와의 동거

복수를 꿈꾸는 오스카와 굶주린 엘리는 피에 대한 갈망을 공유한다. 「렛미인」의 유혈장면은 노골적 이지만 결코 잔혹한 이미지를- 내심 흥분을 감추며- 전하지 않는다. 뱀파이어의 습격은 현란한 속도 대신 체념 서린 단호함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살인은 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서글픈 노동처럼 그려진다. 무엇보다 「렛미인」은 황홀한 러브 스토리다. 초대받지 못하면 인간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는 뱀파이어의 습성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사랑의 순간을 만들어진다. 파리한 피부와 달빛 머리칼의 오스카와 흑발에 다크서클을 지닌 엘리는 빛과 그림자처럼 완벽한 그림을 이룬다.



- ⑤ <저녁의 구애>의 적대세력 : 죽음에 현혹되었다가 간신히 돌아오다

□ 로렌스 블록 <쇼핑백 아줌마를 위한 촛불> (『히치콕 미스터리 매거진 걸작 선』, 강)

“죽었어요?”

“석 달쯤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분은 당신을 알았지요. 아마 당신도 아는 분일 겁니다. 이름은 몰랐더라도요.” 웃음이 더 짙어졌다. 앤젤러가 커피를 가져왔다. 크라이튼은 우유와 설탕을 넣고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셔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스 레드필드는 살해되었어요.” 그는 마치 연습한 문장을 말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지난 2월에 뚜렷한 동기도 없이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노상범죄에 무고하게 희생되었죠.”

“뉴욕에 살았나요?”

“아, 그럼요. 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이 근처에서 죽었지요?”

“서(西) 55번가 위, 9번가와 10번가 교차점 사이에서 죽었습니다. 뒷골목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어요. 여러 차례 찢렸고 목에 둘러댄 스카프로 목을 졸랐습니다.”

지난 2월. 메리 엘리스 레드필드. 서 55번가 위, 9번가와 10번가 사이. 끔찍한 살림. 찢르고 목을 졸랐고 뒷골목에서 시체로 발견. 나는 보통 신문에서 살인 기록을 훑어본다. 직업정신이 조금이나마 있어서일 수 있고, 인간의 비인간성에 대해 관심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메리 엘리스 레드필드가 나에게 유산으로 천이백 달러를 남겼다. 그리고 누군가가 칼로 찢르고 목을 졸랐고—

“아, 맙소사.” 내가 말했다. “쇼핑백 아줌마로군.”

애런 크라이튼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왜 이 문제에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난 전에 경찰이었어요. 지금은 일종의 무허가 탐정인데, 인가증은 없지만 사람들을 위해 이를 해주고 그걸로 풀칠하고 살지요.”

크라이튼의 눈빛이 경계 태세였다.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머리를 굴려보는 듯 했다.

“느닷없이 천이백 달러를 받았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를 잘 모르면서 나한테 돈을 남긴 거지요. 뭔가 까닭이 있기에 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선금으로 받은 거라는 생각이요.”

“뭘의 선금이요?”

“살인범을 찾아내라구요.”

“어.” 그가 말했다. “허.”

“상속자를 모두 모아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라면. 또 상속자가 돈 때문에 그 아줌마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상속자들은 자기 이름이 유언장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 같으니까. 나나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두 사람 다 아줌마한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으니까요. 또 이 일은 뭔가를 얻으려고 저지른 살인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죠.”

그러는 동안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이 사건을 조사한다는 소문이 퍼져 동네사람 전

체가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를 입에 올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정보가 있다거나 나름의 추측이 있다는 명분으로 찾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가져오는 정보도 추측도 실질적으로 별 가치는 없었다. 사실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러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메리가 사망한 날 오후에 『뉴욕포스트』를 파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로 시작해서 메리에 대한 이야기, 쇼핑백 아줌마들에 대한 이야기, 동네의 여러 모습, 미국에 만연한 폭력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 이야기로 끝냈다. 아마 대부분의 대화들이 그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다. 로즈벨트에 온 간호사는 쇼핑백 아줌마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하느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다면 나도 저리 되었겠지.” 그 간호사 말고도 언젠가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두려움인 듯 싶었다. 바우어리의 부랑자들의 모습을 보고 술을 많이 마시는 남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듯이.

“한동안은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그 아줌마 이야기를 해요.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 나는 이름도 모르고 죽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이름을 몰랐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기억이 살아났어요. 당신이 나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난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는 얼굴을 찡그렸고 자기 꼬리를 잡으려는 개처럼 어떤 생각을 쫓아 빙빙 도는 듯했다. 그러더니 포기한 듯 하는 쳐다보았다. “그래서 왔어요.” (중략)

이번에는 커피 없이 마셨다. 트리나가 술을 가져온 뒤 나를 어떻게 희생자를 골랐냐고 물었다. 왜 그 사람을?

그는 울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게 아니라 움푹 들어간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잠시 뒤 그는 소맷자락으로 눈물을 훔쳤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그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니까. 죽었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누가 생각이나 하겠나?”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가 말했다. “모든 사람이.”

이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한 것도 아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플로이드 카프를 끌어낸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다. 말이 퍼지게 하는 데 내가 일조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없었더라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의 유산 때문에 동네에서 메리 앨리스 레드필드가 화젯거리가 된 것이다. 쇼핑백 아줌마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로 유산이 분배되었고, 유산이 죽음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셈이다. 나도 그 유산 때문에 이 일에 끼어들게 되었으니.

그러니 레드필드 아줌마가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을 잡았다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범인이 스스로를 잡은 것일 수도 있고. 어쨌면 우리는 아무도 섬이 아닌지도 모르고, 누구나 다 섬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촛불을 하나 켜다는 것뿐이고,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다.

□ 편혜영 <저녁의 구애> (『저녁의 구애』, 문학과지성사)

화환을 주문한 것은 김의 친구였다. 김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벌써 십 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친구는 목소리만으로 김인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을 만큼 부주의한 성격인지도 모르지만, 다짜고짜 병상에 누운 사람의 용태를 설명했다. 안부를 묻거나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김은 한참 듣고 나서야 전화를 건 사람이 오래전 친구라는 것을, 병상에 누운 사람이 그와 친교가 유지되던 시절 자주 찾아뵈던 어른이라는 것을 알았다……(중략)…… 의사가 이번 오후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어. 친구가 조금 뜸을 들었다. 김이 무슨 말인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문병이나 문상을 위해 병원의 위치를 묻거나 슬픔에 복받친 위로나 회한 어린 공감의 말을 건네주기를. 김이 끝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친구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네게 화환을 부탁해. 김이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는 두 개의 지질학적 판이 만나는 근처에 있었고 오래전에는 기록에 남을 만하 강진이 있었다. 김이 태어난 직후의 일이었지만 위험을 경고할 때면 항상 언급되는 지진이었다……(중략)……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지진 전문가가 말했다. 그런 피해가 있었지만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말이죠. 아무도 언제 어느 도시에서 지진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소 비판적인 성향의 전문가였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땅의 움직임이 보이는 특정한 양상으로 지진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었다. 전문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말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이 서 있는 땅 밑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전문가의 위협과 달리 김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김에게 지진은 먼 땅 어딘가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전쟁 얘기나 다름없었다. 거대한 피해를 안긴 다른 나라의 쓰나미나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다는 얘기와도 같았다. 김에게는 화원의 꽃이 팔리기도 전에 시들어 죽거나, 누군가 돌을 던져 화원의 유리를 깨트리고 도망하는 게 전쟁이나 지진보다 더 불운이었다.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것은 어찌지 못하는 사이 모두에게 닥치는 일이었다. 그러니 두려울 이유가 없었다. 모두 무사한데 자신에게만 불운이 닥치는 것, 김이 생각하는 불행은 그런 것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친구의 전화였다면 김은 자신이 죽음을 재촉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몰랐다. 아직 안 끝나셨어요? 여자였다. 안도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초조해졌다. 그 초조감 때문에 김은 자신이 여자로부터 떠나왔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앞으로 여자와의 통화는 더 드물어질 것이고 간혹 이어지는 만남은 지루할 것이고 말투는 무뎌질 것이며 옷을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럴수록 여자는 더 자주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소홀하고 무관심한 김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서운함과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울컥하고 화를 내고 얼마 후에는 화낸 것을 사과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얼마간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오로지 마음을 되받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며 김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다. 그러다가 문득 이 모든 일을 되풀이할 정도로 김을 사랑하지 않으며 어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시에 허탈해질 것이다. 김으로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찌면 그때 비로소 여자에게 애뜻함을 느끼게 될지도 몰랐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김이 자리에 멈춰 섰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김이 모는 것과 같은 종류의 트럭이었다. 잘못 들었지

싶었으나 트럭이 겹을 스쳐갈 때 다시 한 번 선명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운전자가 부는 모양이었다. 바람 소리나 바퀴 소리, 짐칸에 넣어둔 물건이 덜컹거리는 소리 같은 것은 없었다. 휘파람 소리만 내며 전속력으로 달리는 트럭을 공연한 호기심에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곡선 도로를 돌던 트럭이 김의 시선에 놀란 듯 갑자기 사선으로 기울어지더니 노면을 타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가드레일에 부딪혀 옆으로 기울어졌고 놀란 김이 짧은 감탄사를 내뱉기도 전에 불이 타오르더니 이내 뜨거운 열기 속에 휩싸였다. 트럭을 삼킨 불길이 밤의 국도를 밝혔다. 운전사는 보이지 않았다. 불길이 이미 그를 삼킨 것인지 그 전에 용케 빠져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김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꺼냈다. 경찰이나 구급대원, 병원의 응급센터에 가는 대신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고객의 불만을 듣고 있는 중이거나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한참 만에야 전화를 받았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려왔다. 차분하면서 규칙적인 소리였다. 그 소리가 묘하게 김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김은 여자의 숨소리에 맞춰 숨을 내쉬고 들이마셨다. 여자와 호흡을 맞추려면 조금 서둘러 숨을 뱉어야 했다. 숨의 간격을 낮추기 어려워지자 김은 여자에게 대뜸 사랑을 고백했다. 여자는 잠자코 있었다.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떤 대꾸를 하는 것도 두려워서 오로지 여자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유심히 여자를 바라보는 기쁨을, 여자와 처음으로 우연히 팔꿈치가 스쳤을 때 박동한 심장을, 처음 여자의 손을 잡았을 때 거짓말같이 여겨지던 낯선 감각을, 그를 차분하게 하는 부드러운 숨소리를 얘기했다.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여자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던 순간의 설렘을 얘기했다. 김은 여자에게 말한 것들이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임을 잘 알았다. 자신의 말은 모두 어디선가 읽거나 들은 얘기 같았다. 어쩌면 여자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너무 상투적이고 진부해서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었다. 반면에 그래서 진심처럼 들리기도 했다.